존경하는 대구 시민 및 환경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장 정병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보전을 위해 애써 오신 공로로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2회 환경의 날 주제는 '사람과 자연을 잇는다(Connecting People to Nature)'입니다. 금번 환경의 날을 맞아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길을 함께 찾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 지구를 위한 각오도 새롭게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높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 질 개선 추이 및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가동 중단,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천연가스버스 및 미세먼지 집중 측정망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 대한민국과 청정 지구를 위해 전 국민이, 전 지구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문명의 발전으로 물질적인 삶의 질은 높아 졌지만 그에 반해 우리가 느끼는 환경문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 가뭄, 폭염, 폭우 등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현상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중 봄·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기는 여름으로 진입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또한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대구는 특히 더운 것 같습니다. '대프리카'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폭염이 발생하면서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데요, 우리 환경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에 대해 상시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요,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며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 수위를 저하하고 또한, 「보 개방·모니터링 현장대응 상황실」을 구성하여 직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며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는 인류 모두가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환경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수돗물과 에너지 절약이 우리의 생활습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일은 불편하지만 시민 개개인부터 더 나아가 국민 전체,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준다면 분명 우리의 환경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청과 대구시는 함께 손잡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가까운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구시가 수자원 분야 세계 최대 행사인 '2019 제17차 국제수자원 협회 세계 물총회'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개최지 결정은 대구가 지난 2015년 제7차 세계 물포럼과 2016년 제1회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노하우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로써 대구는 국제 물 분야에서 수자원과 수질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물 산업 허브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자연, 우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구시를 비롯하여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분들과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